

종합·국제

한국 작년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스웨덴 전문기관 밝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219억달러로 세계에서 11번째 규모라고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1일 밝혔다.

또 최근 들어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작년 군사비 지출액은 495억달러(세계 4위)로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IPRI는 작년 10월 핵 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처음으로 핵보유국가에 포함시켰다.

지난 해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

中 495억달러 4위...일본 앞질러

北 처음으로 핵 보유국에 포함돼

한 나라는 미국.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5천287억달러를 지출,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46%를 차지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작년에 군사비로 각각 592억달러, 531억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돼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작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모두 49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군사비 지출 순위에 있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5위 일본(437억달러), 6위 독일(370억달러), 7위 러시아(347억달러 추정)를 모두 앞서는 것이다.

8위는 이탈리아(299억달러), 9위

는 사우디 아라비아(290억달러), 10위는 인도(239억달러)가 차지, 아시아에선 3개국이나 10위권에 들었다.

작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19억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것. 국민 1인당 군사비 지출은 455달러로 나타났다.

IPRI는 작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플루토늄 비축량을 근거로 할 때 6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다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처음으로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국법질서 파괴 및 대선개입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강재섭 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盧대통령 선관위 재고발

“헌정 파괴 행위 중단해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공대 강연 및 6·10 항쟁 기념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조급대반성함이 없이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며 “특히, 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거 중립의무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는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행위는 공직선

거법 9조1항(공무원 중립의무), 60조 1항14호, 85조1항, 86조1항1호(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 254조2항3호, 4호(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의 삼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의법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국법질서 파괴 및 대선개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서실 설치면 불행...언론 비판 두려워 말라”

박지원씨 특감서 참여정부에 쓴소리



에서 9시 뉴스를 시청하고 10시부터는 신문과 각종 보고서를 탐독했다

다”면서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알려진 대로 특정인과 대화를 나눴고, 노 대통령은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은 뒤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말라”고 충고했다.

박 전 실장은 특히 “대통령 임기 많은 대선의 해”라며 “저는 DJ의 명령을 받아 정치적 중립 입장을 수차례 천명했으며 우리 스스로 ‘정치적 식물인간’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독, 경제 올인’의 자세로 청와대 비서실의 대선 개입 문제를 차단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김대중(DJ) 전 대통령직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11일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경험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참모진, 언론정책, 선거중립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실장은 이날 저녁 연세대 행정대학원의 ‘대통령학’ 과정에서 특감을 했다. 박 실장이 외부 강연에 나선 것은 4년여만의 일로 스스로도 ‘5년만의 외출’이라고 표현했다.

박 실장은 “대통령의 비서는 정치인이 아니고 비서일 뿐으로, 정적 입은 없다”며 “노마법도 잘못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끼리를 자르듯 실사 대통령의 결정이라 해도 임기 마지막까지 결과가 잘못되면 비서가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니 지금 현재 비서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라고 생각해 비서실의 불행을 가져온 적이 종종 있다”며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비서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그는 또 “측근은 때로는 대통령의 입을 막고 차 앞에 드러누워 가시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수석, 장관이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면서 “나쁜 정책보다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 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저녁 10시 이후가 대단히 중요한 데 DJ는 관저

“이택순 청장, 美 출장때 한화고문과 문자메시지”

이택순 경찰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복행 사건 보고를 받은 후 고고 동기동창인 유모 한화그룹 고문과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은 12일 “이청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출장중이던 4월 26~27일(현지시각)에 유고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청장은 유 고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미 언론보도 스크랩 등을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복행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남 감사관은 “유 고문이 미국 출장중이던 이 청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 청장은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가 기록이 남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이나. 미국 출장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유 고문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4개>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4 auction item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4 auction items.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비고. Contains 24 auction items.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은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법원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 가압류 등을 순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완식